

있어서 이 新例鐘의 方廓配置意匠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만 演福寺鐘은 上·下層段 사이에 굽은 腰帶文과 梵字文帶를 두  
르고 있으며 下層方廓 아래로는 波濤文帶와 八稜口帶를 둘렀고 그 方廓  
의 數와 間隔이 좀 다를뿐이다. 말하자면 開城 演福寺鐘의 鐘身裝飾意匠  
이 簡略化되면 이 新例鐘과 같은 方廓文鐘이 될 수 있으리라 하는 짐작이 간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면 이 小鐘은 아마 演福寺鐘이 부여진 一三四  
六年에서 머지않은 어느 時機에 이 演福寺 元鐘樣式의 一部가 作用해서  
在來 韓國鐘樣式과 混成된 高麗末期梵鐘의 一例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鐘은 비록 演福寺鐘에는 비길 수 없는 小品에 不過하지만 鑄金이 매  
우 능숙하고 또 그 뒷처리에 도 매우 정성을 드러서 다듬은 지취가 있고  
四瓜龍鈕의 表現도 자못 精細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內部로貫  
通된 四珠甬筒도 그 比例가 快適하고 또 鐘肩에 두른 一種의 圓頭文立  
華장식도 정성이 드러진 솜씨이다. 아마도 이 圓頭文立華장식은 如意  
頭文이 退化된 것인 듯 그 圓頭의 大小가 고르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이 鐘의 保存狀態는 매우 좋아서 鐘身全面에는 고운 녹빛이 고  
르게 번져있고 또 거의 닦잡을 곳이 없는 좋은 솜씨이지만 出土地를 確  
認하지 못한 것과 다만 몇자라도 銘文이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 이 鐘에 대  
한 아쉬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金銅如來立像

秦 弘 燮

忠南 牙山郡 松岳面 首谷里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이 佛像은 높직  
한 臺座위에 正面 直立하였는데 金色이 比較的 잘 남아있다. 頭髮은 螺  
髮이며 둥근 顔面에 相好가 明瞭하지는 못하다. 三道의 表示가 없고 法  
衣는 通肩이다. 衣紋은 大凡하게 表現되어 前面에는 數條의 굽직한 隆  
起線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다리에 統一期 新羅 金銅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橢圓形이 各各  
表示되었다. 衣端은  
두 팔에 걸쳤고 袈  
衣는 발목까지 내려  
오고 있다. 右手는  
허리까지 들어서 上  
掌하였는데 藥壺나  
寶珠가 놓였던 痕跡  
은 없다. 左手는 施無  
畏印인 듯하다. 肢體

의 均衡이 좋은데 側面觀으로는 頭部가若干 큰 便이며 腹部가 앞으로 내  
밀려있다. 背面은 空筒인데 光背를 附加하기 爲하여 肩部와 兩足 사이에  
突起가 달려있다.

臺座는 底面 八角形으로 各面에 簡單한 眼象이 透刻되었고 그 위에  
伏蓮臺가 얹히는데 伏蓮은 點線으로 七瓣 重葉을 나타냈는데 瓣內에 지  
은 葉이 있어 重瓣으로 되었다. 伏蓮 위에는 仰蓮이 놓이는데 亦是 點線  
으로 單瓣을 表現했는데 瓣數는 明確하지 않으나 八瓣 乃調 九瓣인 듯하  
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全高一·二cm 像高八·二cm 頭高二·一cm 臺座底徑四·七cm 仰蓮臺  
徑一·四cm.

### 完州郡 三奇里的 石佛二軀

鄭 永 鎬

全北 完州郡 高山面 三奇里 國民學校後庭에 坐像과 立像의 石佛二軀가  
保存되어 있는데 一九六二年 十二月二十六日 同人 文甲洙 孟仁在 申榮勳  
諸氏와 함께 이 곳을 訪問調査한 바 貴重한 資料이기에 紹介하려 한다.





一、石佛坐像  
花崗石材로  
結跏趺座하였는  
데 頭部가 缺損  
되어 遺憾이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어깨에 걸친 衣褶이 있고 가슴에 흐른 衣文과 右腕에 걸친 衣文은 兩膝을 덮었으며 胸前에는 袿衣의 結帶가 보인다. 右手는 무릎 위에 놓고 左手는 들어 가슴에서 옷자락을 쥐고 있는데 그

二七이다. 坐像의 溫柔한 各部手法이나 竿石의 飛天像 上臺의 流麗한 蓮瓣等의 彫法으로 미루어 年代는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二、石佛立像

頭部와 膝以下가 缺損되어 完全品은 아니나 出土品이어서 各部彫刻이 完全함은 多幸한 일이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瓔珞이 드러졌으며 양쪽 팔과 손목에는 各各 같은 形態의 腕釧을 끼었는데 「팔」의 것에는 連珠文과 花瓣이 確然하다. 法衣는 通肩인데 양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臍前에서 結束되었으며 天衣는 腰帶右便과 左腕에 걸쳐 美麗하게 흘렀다. 右手는 自然스럽게 내려져 長指와 中指로 옷자락을 잡았으며 左手는 胸前에 들어서 長指와 拇指로 瓔珞을 잡고 있다. 實測值 (cm)는 像高 一〇五 肩幅 四五 胸幅 三四이다. 날씬한 몸매와 兩腕의 柔雅한 曲線 流麗한 衣文等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前述한 坐像과 同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樣式이 注目되었다. 臺座는 下臺를 缺하고 (現在 사진에서 보이는 下臺石은 上臺로서 잘못 놓인 것임) 八角竿石과 長方形의 上臺石만이 있다. 竿柱의 前面과 左右各二面式 都合五面에 眼象을 새기고 그안에 正面에는 飛天像을 他面에는 秦樂像을 陽刻하였으며 各眼象 사이에는 花紋으로 彫飾하였는데 後側의 他三面에는 眼象等 一切다 른 彫刻이 없다. 上臺石은 上面한쪽에 長孔이 있어 光背를 配置했던 痕跡을 알 수 있다. 下面은 竿石위에 놓여지는 部分이 八角이고 二段의 角形받침이 彫出되었으며 仰蓮은 單葉으로 七瓣이 彫刻되어 있다 (後面에는 없음) 實測值는 cm 像高 八八·五 肩幅 五五 膝幅 九〇 胸幅 四一 上臺石 上面 一〇二×九四 下面 一邊長二五 竿石 一邊長 二四高

以上の 兩軀는 三奇國民學校에 在職中이던 李承喆氏가 ① 一九六一年 五月十八日 學校 뒷산인 「봉림산」기슭에서 坐佛의 肩部가 露出된 것을 發見하고 그後 埋沒된 部分을 發掘하였는데 當時作業中 坐像의 右便에서 立像이 發見되었고 坐像의 臺座도 伴出되었다는 바 그 下臺石과 光背도 發見되어 發掘作業을 繼續하려는 次 山主 ②의 妨害로 中斷되어 前記의 遺品밖에는 發掘하지 못하였고 그後 이들 出土物은 一九六二年 三月에 現位置로 移置되었다 한다. 이像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③에 보이나 여기에는 坐像一軀만이 記錄되어 있다. 아직 現地に 埋沒되어 있는 下臺와 光背를 發掘하여 完形으로써 保存할 수 있는 對策을 講究했으면 좋겠다. 現在 沃溝郡 開井面 鉢山里에 있는 「完州三奇里石燈과 石塔」의 原位置가 바로 이곳인 바 앞으로 이곳一帶의 再調査를 바라면서 끝으로 當時調査에 諸般便宜를 주신 全州地方法院의 黃冕周氏에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註

① 氏는 當時에 實務者였는데 附近에서 瓦片을 蒐集하던中 坐像肩部를 發見하여 곧 發掘에 着手했다는 바 아직 現地に 埋沒되어 있는 光背

에는 化佛과 背面에 佛像一軀가 陽刻되어 있으며 下臺石의 蓮瓣이 美麗하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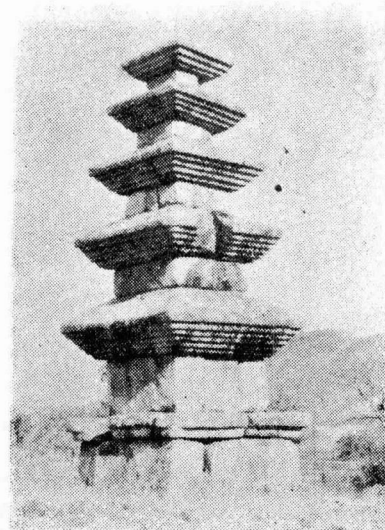
- ② 朴成熙氏(完州郡華山面宗里三區居住)로서 이 곳이 氏의 先山이라 함.
- ③ 「石佛ニシテ牛身地下ニ埋レ地上ニ露出セル部ハ約二尺五寸頭部損ス」라 있다.

### 清原郡 桂山里 五層石塔

李 殷 昌

忠清北道 清原郡 加德面 桂山里 「말미장터」라는 部落 南쪽 언덕 밭가운데에 石塔 一基가 現存하고 있다. 最近에 이 石塔을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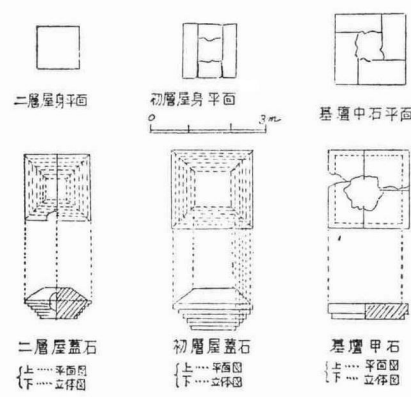
花崗石으로 建立된 總高約 7m의 五層石塔인 바 基壇上에 五層塔身이 重積聳立된 方形塔이며 相輪은 없어졌고 基壇甲石 一部와 二層屋蓋石 一部에 若干의 破損이 있을뿐 其外는 完全하다. ① 基壇下部가 埋沒되어 그 構造와 重基壇의 與否가 궁금하다. 基壇中石은 四枚板石을 口字形으로 세웠고 그위에 三枚板石으로 짜인 基壇甲石을 덮었는데 甲石上面



은 彫刻없는 平面이고 甲石下部는 副像이 彫出되었다. ② 塔身은 基壇上에 五層의 屋身과 屋蓋을 층층이 쌓아올렸다. 初層屋身은 四個石片으로 造成되었는 바 長大한 石片二個를 東西로 놓고 그

사이에 좁 작은 石片二個를 南北으로 놓았으니 그 高가 높다. 二層屋身부터는 갑자기 短縮되어 高가 낮아지고 五層까지 一石으로 繼續되었으며 各層 모두 隅柱와 撐柱의 表示가 없다. 다만 三層屋身은 初層의 境遇와 같이 四個石片으로 造成되었는데 이는 或後補나 아닌가 한다. 屋蓋에 있어서는 初層은 二個石片을 南北으로 잇대어 놓았고 二層 또한 二個石片을 東西로 잇대어 놓았으며 三、四、五層은 各各 一個石으로 되었다. 屋蓋檐下는 「屋蓋石받침」이 一、二層은 五段級、三、四層은 四段級、五層은 三段級으로 上層에 이를수록 減小하는 傾向을 보이고 屋蓋上面은 四隅降棟이 直斜線으로 내려오고 落水面이 急한 勾配를 이루었다. 곧 四隅轉角은 反轉이 없고 落水面과 層級받침(持送)이 추너끝에 促迫하여 重厚한 手法을 보인다. ③ 相輪部는 없어져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以上 記述한 바를 綜合해보면 塔 名部가 精巧한 맛이 없이 大凡한 處理로 稚拙한 솜씨를 보이고 있으나 規模가 巨大한 經營으로 基壇、屋身、屋蓋 등의 減縮比例가 適切하여 全體均衡이 잘 잡힌 石塔이라 하겠다. 特히 本塔의 注目되는 바는 첫째로 基壇中石 또는 屋身石에 隅柱、撐柱 등의 表示가 配慮되지 않았음이요 둘째로는 屋蓋石이 다른 石塔에 比하여 重厚하면서도 他方 特異한 모습으로 結構樣式을 이룬 點이니 곧 石塔이라기 보다는 博塔에 가까운 傾向을 보이고 있다. 年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石塔에 關한 記錄이나 文獻도 없고 또 寺址에 對한 來歷을 알만한 資料도 없고 寺址 또한 石塔以外는 다른 遺物을 찾아 볼 수 없다. 石塔은 寺址에 南北線을 取하고 있는데 南쪽은 丘陵이 臨迫하여



桂山里 五層石塔 分解圖